

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Langara College	기간	2019. 08. 05. ~ 08. 25.

2. 파견대학, 수업, 필드트립 등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전체적인 분위기는 1,2주차는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3주차부터는 없어서 한적하였고 저희 반 분위기는 자유롭고 선생님께서도 워낙 웃음이 많으셨고 한 번도 학생을 혼낸 적이 없었습니다.</p> <p>다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였으며 일본인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.</p> <p>학교 위치는 근처에 바로 역이 있어서 수업 끝나고 여행 다니기 좋았습니다.</p>
수업	<p>저희 반 과제는 일주일에 저널 한 두 번 정도 쓰는 거였고 수업도 알차게 준비 하셔서 좋았습니다.</p>
필드트립	<p>카약킹과 디스커버 밴쿠버는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는데 휘슬러트립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너무 추웠습니다. 비도오고 산 정상은 거의 8도?보다 더 낮았던 것 같습니다. 디스커버 밴쿠버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힘들긴 했습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는 첫 주는 덥지 않은 여름이었는데 둘 째주 부터는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학교 가는 아침과 저녁은 좀 쌀쌀해서 긴팔을 입어야하고 낮에는 반팔? 얇은 겉 옷 꼭 있어야합니다. 전체적으로 가을 날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</p>

안전	<p>처음에 치안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시고 동영상도 많이 봤는데 동영상에서 본 것 만큼은 치안이 안 좋지 않았습니다. 근데 밤 늦게 다니기에는 캐나다 자체가 밤 늦게까지 술 먹고 그런 곳이 아니라 밤 늦게는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.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.</p>
숙소	<p>제 홈스테이는 일단 좋았습니다. 제일 좋았던 점은 학교에서 걸어서 4분 거리라서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도 지각 한 번 하지 않았던 점?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지하에 방이 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전 2층이라 쾌적하기도 하고 방도 넓고 좋았습니다.</p> <p>홈스테이 규칙은 딱히 없었고 빨래도 제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습니다. 건조기도 항상 같이 했는데 별 말씀 없으셨고 항상 귀가는 10-11시30분 사이에 했던 것 같은데 한 말씀도 안하셨어요. 저희 집이 워낙 자유롭고 규칙 같은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. 콜라나 음료 우유 등 매일매일 먹고 싶을 때 마다 먹었고 물도 정수기라서 잘 먹었습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 (V) 외부식당 (V) 기타 (V)</p> <p>아침은 첫 짜주 까진 빵이나 시리얼 같은 거 알아서 챙겨 먹었는데 둘 짜주 부터는 늦게 일어나서 안 먹었습니다.</p> <p>점심은 늘 학교 점심시간에 팀홀튼 있는 식당에서 홈맘이 싸주신 샌드위치 먹었습니다. 첫 날에 샌드위치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3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샌드위치만 먹었습니다.. 차라리 향이 강한 음식들이나 다른 음식들보다 차리리 샌드위치가 훨씬 나았습니다.</p>
교통	<p>교통은 굉장히 생각보다 편리했어요.</p> <p>매일 구글 맵으로 버스나 스카이트레인 타는 방법이나 시간 등 잘 나와 있고 컴패스카드? 교통카드 같은 건데 이게 있어서 교통비가 안 들었어요. 존으로 나뉘어서 2존부터는 추가적인 돈을 조금 넣어야 하는데 그런 건 다 학교 오티때 설명해줘서 좋았어요. 교통은 개인적으로 편했는데 밤 9시부터는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있어서 너무 늦게 들어가게 되면 오래 기다려야했어요. 전 집이 가까워서 상관 없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밤 늦게 귀가 할때는 조금 불편했다고 합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항목	비용(원)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외식	800,000원	
기념품,쇼핑	700,000원	
합계	1,500,000원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한국시간으로 8월초에 가게 되는데 절대 한여름이라 생각하지 말고 겉옷 잘 챙기셔야 합니다.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얇은 겉 옷 꼭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. 전 매일 남방이나 후드집업? 같은거 입었었고 비오는 날은 엄청 추워서 후드티 입고 다녔어요. 핸드폰 유심 미리 하시고 공항수령이 편해요. 110V 돼지코도 꼭 챙기시고 저 같은 경우는 쇼핑 많이 할 거라서 옷 많이 안 챙겼었어요. 외식 값은 늘 팁(15%정도) 줘야하기에 꽤 비싼데 매일 밖에서 사먹어도 그렇게 돈 많이 안 썼어요. 한 사람당 한 캐리어 23KG 까지 이기에 큰 캐리어 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전 그냥 한 개 챙겨갔어요. 백팩이나 크로스백 꼭 챙기시고 비상약도 챙기세요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분위기가 제일 좋았어요. 그 나라 자체의 분위기. 한국은 무언가 치열하고 경쟁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많이 쓰게 되는 나라이지만 캐나다는 정말 달랐어요. 사람들이 항상 여유로워 보이고 자유롭고 남의 시선에 신경쓴다는 느낌을 절대 못 받았어요. 항상 길 건널 때도 무조건 사람을 먼저 보내고 무언가 빨리 해야한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없었기에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분위기이기에 꼭 한 번 경험 하셨으면 합니다.

7.사진보고서(6장이상필수)



3주과정 세레머니 때 찍은 반 사진



휘슬러 트립때 빌리지에서 찍은 사진



키칠라노 비치 옆 야외수영장



리치몬드 나이트마켓



2주 차 프레젠테이션 발표 포스터



화이트락 해변